최영완 ㈜씨에스오 대표

우주에서 지구 바라보는 '눈',
초소형·고성능 광학 카메라로
우주산업과 AI·데이터 산업의 발전 이끈다

New Space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우주 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위성 분야에서 카메라 성능은 데이터 가치 및 사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는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곧 응용 분야와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까닭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생산해낸 데이터라는 Space Heritage는 AI·데이터 산업을 떠받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입력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고 가벼우며 선명한 '우주에서 검증된 눈'이 필요하다. ㈜씨에스오는 긴 시간 축적해 온 광학기술을 활용해, 작고 효율적인 위성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작지만 강력한 위성'이 이끌 우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초소형·고해상도 우주용 광학 카메라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간다.

기획/취재 김은애 기자 kea@monthlypeople.com 인터뷰 남윤실 편집장 nys@monthlypeople.com
사진 박성래 기자 psr@monthlypeople.com



국가·산업·안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생산 설비로서의 우주용 광학 카메라 연구·개발

위성 카메라는 수만 km/h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바닥의 동전 연도를 흔들림 없이 읽어내는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극심한 진동, 온도 변화, 진공 환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우주 환경에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씨에스오는 시속 수만 km로 움직이는 우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정밀 관측 시스템을 선보이며,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한 기술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 소형 위성에 탑재가 가능하면서도 멀리 떨어진 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인 우주용 광학 카메라를 통해서다.

최영완 대표는 지난 30여 년간 위성의 눈을 설계하고, 조립하고, 시험하며 우주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고유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해 온 인물이다. 긴 시간 광학 기술 개발 현장에 몸담는 동안 반복적으로 비슷한 장면을 목격해왔다. 어렵게 축적한 핵심 기술과 경험이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는 조직 내부에서 흩어지고 마는 광경을 접한 것이다. 민간 주도로 재편되는 New Space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공급 구조로 움직이는 시장 역시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러한 인식은 씨에스오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 최 대표는 은퇴를 택하기에는 현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기술과 경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고 판단했다며, 긴 시간 축적해 온 설계 노하우, 실패와 수정의 경험,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다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한 길을 열고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멈춰 세운 팬데믹 또한 최 대표가 창업의 기회를 엿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광학 전문 기업과 숙련 인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하나의 전문 조직으로 집약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우주광학이라는 고난도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고자 씨에스오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씨에스오는 국가·산업·안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생산 설비로서의 우주용 광학 카메라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씨에스오는 정부만을 위한 수동적 공급자가 아닌,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민간 주도의 우주광학 전문조직입니다. 한국에서 축적된 우주광학 기술과 경험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고,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남기고자 합니다."

광학 카메라 시스템의 소형화·경량화 이끌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씨에스오의 사업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초소형 위성 탑재용 전자광학 카메라 시스템은 큐브샛이나 소형 위성처럼 크기와 전력이 제한된 플랫폼에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구관측용 카메라 시스템이다. 기존의 위성 광학 기술이 대형 위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번째는 고해상도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차세대 초고해상도 광학 탑재체 기술이다. 여러 개의 반사경을 정밀하게 배치하여 작은 부피에서 큰 망원경에 가까운 성능을 구현해 낸다. 위성의 크기와 무게는 줄이면서도, 지상을 더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 셈이다. 마지막은 초저궤도(VLEO)를 포함한 적외선·심우주·방산/무인기/국가안보 분야 광학계이다. 씨에스오는 지구 관측을 넘어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관측 ▲심우주 탐사를 위한 광학계 ▲방산·무인기·국가안보 분야에 적용되는 고성능 광학 시스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열이나 야간 정보를 포착하는 적외선 광학, 작은 크기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정확도가 필요한 무인기나 국방 등 다양한 환경과 목적에 맞는 '맞춤형 우주의 눈'을 설계하면서다.

"씨에스오는 독보적 기술력을 통해 '작은 위성으로도 큰 위성만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해 왔습니다. 단순한 설계를 넘어 카메라를 실제로 만들고, 조립하고, 시험하고, 우주에서의 동작까지 고려하며 기술의 상용화를 이끌어왔죠. 이는 실제 위성 운용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에서 비롯된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성능은 씨에스오 광학 시스템의 핵심 성능으로 손꼽힌다. 위성에서 사람이 서 있는 위치의 윤곽이나 차량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인 30cm의 해상도를 넘어, 10cm 이하의 해상도에 도전하고 있다. 지상에서 작은 물체의 변화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광학 설계, 센서 구동, 흔들림 보정, 데이터 복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체 관측 체계를 정밀하게 맞추기 위함이다.

소형화·경량화 설계 철학 역시 씨에스오가 자랑하는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기존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가 크고 무거운 망원경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사업 초기부터 초소형·소형 위성에 맞는 설계에 집중해왔다. 소형화·경량화 설계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다중 반사경 구조, 고정밀 정렬 설계, 불필요한 부피를 줄이는 광학 아키텍처를 적용했다. 더불어 진동·온도·방사선 등 우주 환경 요인 대응 기술을 축적했다. 우주 환경에서는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발사부터 궤도 진입 후 영하 수십 도에서 영상 수십 도까지 반복되는 극단적 온도 변화를 겪게 된다. 씨에스오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광학 정렬 구조를 구현했다. 단순한 부품이 아닌 시스템 안정성 설계의 결과다.

현대 지구관측의 경쟁력은 단순히 이미지 촬영을 넘어,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에 씨에스오는 AI/ML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품질을 염두에 두고, 영상 왜곡 최소화, 일관된 방사 품질,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AI/ML 대응 데이터 처리 구조를 구축해 AI가 학습하기 좋은 '깨끗한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Super-resolution 기술이다. 위성이 이동하며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위치 차이(서브픽셀 정보)를 활용해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를 더 정밀하게 복원해낸다. 최영완 대표는 광학 설계와 센서 구동을 전제로 한 물리 기반의 기술이라며, 여러 장의 살짝 다른 사진을 겹쳐 더 또렷한 한 장을 만드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찾은 가능성, 우주에서 실제 작동하는 총체적인 시스템 개발에 도전하다

1990년대 우리별 2호 개발과 쎄트렉아이 공동 창업, 그 후 ㈜씨에스오 설립까지의 과정은 물리학을 전공한 최영완 대표에게 ‘우주’라는 새로운 여정의 문을 열었다. 위성용 카메라를 전담할 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생소한 분야였지만, 이는 최 대표가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개발 현장에서 광학 설계와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해당 분야에 매료되었다는 그다.

이후 최 대표는 카메라의 광학 설계, 조립, 정렬, 시험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정의하고 구축하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개별 기술을 부분이 아닌 전체 시스템으로 조망하는 관점을 형성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우주광학이 단순히 부품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제작-정렬-시험-우주 운용까지 이어지는 총체적인 시스템 기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위성 기술을 축적하고 사업화에 도전하던 경험 자체가 New Space 시대를 향한 사고방식을 다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씨에스오의 시스템 통합 전략은 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우주에서 시작해 지상 서비스로 이어지는 하나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흐름이야말로 씨에스오의 광학 카메라가 다양한 환경과 임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죠.”

지상에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와 수년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카메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우주에서 촬영된 한 장의 이미지 뒤에는 광학 설계부터 센서의 구동 방식, 구조물의 강성, 발사와 궤도 환경에서의 진동과 온도 변화, 그리고 촬영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할 것인지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우주용 광학 카메라를 개발하는 씨에스오의 여정은 ‘이 카메라는 우주에서 정말로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각각의 기술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며 우주 환경에서 고유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나가는 것이다. 일례로 더 선명한 영상을 위해 해상도를 높인다면, 이는 미세한 흔들림에도 이미지가 흐려질 가능성을 키우는 반작용으로 이어진다. 씨에스오는 광학 설계 단계에서부터 센서 구동 방식과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함께 조정하며 이러한 문제 극복에 다가선다. ‘사진을 찍는 장치’로서의 카메라를 넘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조립과 정렬은 물론 시험 단계, 궤도 운용을 가정한 시나리오 속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 대표는 지금의 이 선택이 실제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끝까지 추적하며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에스오는 지난해 말 ‘200만 불 수출의 탑’ 및 ‘2년 연속 우수신기술 대상’을 수상하는 걸출한 성과를 달성했다. 중기부 주관 2025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러한 감사한 수상이 자신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주도 위성 개발과 사업화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길을 걸어왔다. 30년이 넘는 시간 여러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위성용 카메라를 개발·공급하며 기술적 성과를 쌓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일련의 성과들이 시대와 환경이 맞아떨어진 결과인가, 그간 쌓아온 실력과 선택의 결과인가라는 의구심이다. 씨에스오 재창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과거의 이력이나 명함이 아닌 기술 그 자체로 다시 평가받기 위함이다. 씨에스오가 2023년 설립 이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2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에 도달하는 순간은, 그간의 경험과 성취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최 대표는 그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우주 실증과 글로벌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증명해나갈 것이라며, 우주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씨에스오를 이끌며 대표의 독자적 역량과 판단이 아닌 조직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스스로 움직일 때 비로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체감했죠. 일련의 경험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 것’, ‘실수로부터 반드시 배울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기술개발과 사업은 언제나 예상 밖의 문제를 동반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곧 끝나지 않은 과제가 남았음을 뜻합니다. 대표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에서 각자의 역량이 비전으로 연결되도록 돕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설에서 검증으로, 씨에스오 기술과 경험을 입증해낼 터닝포인트 ‘대전샛(SAT)’

독보적인 고해상도 우주광학 기술을 축적해온 ㈜씨에스오이지만, New Space 시대를 맞이한 시장에서는 기술 설명이나 시제품만으로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 실제로 우주에 올라가 작동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씨에스오는 대전 지역 주도의 초소형위성 개발 프로젝트 ‘대전샛(SAT)’에 참여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전샛은 전국 최초로 지역 우주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는 초소형급 큐브위성으로, 대한민국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 위성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대전샛의 핵심 참여기업으로서 씨에스오는 초소형 위성에 탑재되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담당한다. 제한된 크기와 전력, 그리고 발사와 우주 환경이라는 조건 속에서 광학 성능이 실제로 구현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최영완 대표는 카메라가 발사 충격을 견디고 궤도에 진입한 후의 온도 변화 속에서도 초점을 유지하며,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설계-조립-정렬-시험-우주 운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해 낸 씨에스오의 기술력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작동

하는지를 입증하는 사례이자, 우주에서 검증된 기술로 공식 인정받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대전샛은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지구를 관측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한 실험이죠. 우주 환경에서 새로운 관측 방법론을 실험함으로써 앞으로의 지구 관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대전샛의 성공은 서브미터 이하의 고해상도 영상을 과거처럼 크고 비싼 위성이 아닌, 초소형 위성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수단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이를 우주에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대의 고성능 위성에 모든 것을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대의 위성을 군집 형태로 운용하며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자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이렇게 축적되는 방대한 관측 데이터는 AI/ML 분석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된다.

대전샛의 성공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가 열린 New Space가 또 한 걸음 진화한 데 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무게추를 옮긴 우주 기술이 다시 공공과 공유되며 시너지를 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고해상도 영상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가 정보 차원의 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최 대표는 대전샛은 지구관측 데이터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의미있게 활용하는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대전샛을 통한 제품의 우주 실증이 완료되면 씨에스오의 기술은 '가능성 있는 기술'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가능성을 설명하는 약속에서 검증된 사실로 변모함에 따라, 고객과의 대화 방식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설계와 작동을 입증함으로써 고객과 파트너, 투자자와의 대화에서도 결정적 신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동시에 회사의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는 토대가 된다. 우주 실증은 기술팀에게도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설계 단계에서의 가정과 시험 과정에서의 판단, 운용 시나리오에서의 선택이 실제 우주 데이터로 검증되며, 일련의 과정과 기술은 경험으로 축적된다. 최 대표는 이러한 경험이 다음 제품과 프로젝트에서 설계 기준과 의사결정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산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의 기업에서 출발한 우주광학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미래를 그리다

㈜씨에스오는 지난 수십 년간 위성 광학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왔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경험을 더하며 세계 시장을 향한 첫 발을 디뎠다. 그 시작이 바로 제3세계 국가들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환경 관리와 농업 생산성, 재난 대응을 위한 지구관측 데이터의 필요성을 절감함에도, 현실적 한계로 인해 대형 위성이나 초고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씨에스오는 카자흐스탄 우주청을 대상으로 환경·농림 관측용 중해상도 위성 카메라 6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적외선 관측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물 생육 상태와 토양 수분, 환경 변화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적외선 관측은 개발도상국의 농업·환경 관리에도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최영완 대표는 씨에스오가 이들 국가에 초소형·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비용의 관측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술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지역 허브를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모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씨에스오는 데이터 활용과 운용을 포함한 장기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도 씨에스오의 기술과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내오고 있다. '저비용 대안'이 아닌, 초고해상도 광학을 소형 플랫폼에 구현하기 위한 기술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씨에스오의 글로벌 전략이 특정 시장을 겨냥한 단기 전략이 아닌,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확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만을 위한 공급망 중심 구조를 넘어, 해외 최고의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과 데이터 생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였다. 특히 군집위성을 기반으로 한 지구관측과 AI 데이터 시장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설계해나갈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주기술은 결국 사람과 신뢰, 그리고 실증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주실증을 통해 확보된 신뢰는 씨에스오가 보유한 광학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씨에스오는 공격적인 해외 진출이 아닌,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신뢰가 시장을 확장시키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우주광학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씨에스오가 축적해온 광학기술은 지구 관측을 넘어 방산, 무인기, 국가 안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심우주 탐사 등 고난도 임무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히 '카메라 판매'라는 개념을 넘어 관측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가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연결 구조를 구축한 결과다. 최 대표는 우주 실증이 더해지면 개별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반복 가능한 제품군과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연속 수주와 장기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서는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며 발사체 신뢰도를 축적하듯, 광학·센서 탑재체의 정기적이며 반복적인 우주 실증을 통해 'AI/ML용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최 대표는 단발성 실증이 아닌, 민간 기업이 참여해 군집위성 운용까지 염두에 둔 지속적인 우주 검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넘어 데이터 수출과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 정책은 개발된 기술이 AI/ML 기반 데이터 산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은 씨에스오가 준비해 온 모든 역량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해내는 원년이 될 것이다. 기술을 만들고, 조직을 다지고, 시장과의 대화를 준비해온 모든 시간이 현실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최 대표는 대전샛을 통한 우주 인증이라는 마일스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적 기준과 검증 요구가 가장 엄격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신뢰로 성장하는 기업, 우주에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과 정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갈 씨에스오의 여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